

보도시점 6. 26.(목) 조간 < 6. 25.(수) 12:00 >

한-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중동 진출 중소벤처기업을 선발·지원한다.

-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7.7~24)
- 사우디에서 3개 부처, 6개 정부 기관 및 민간 벤처투자사(캐피탈) 등이 참여 예정
- HUMAIN(사우디 AI 총괄기관), 최대 200만불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 사우디 국내총생산(GDP)는 1.1조 달러로 중동 최대인 반면, 중소기업 사우디 수출은 10억불로 전체의 중소기업 수출(1,110억불)의 0.9%에 불과(‘24년 기준)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하였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 민간 벤처투자사(캐피탈)와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헬스, 관광·엔터테인먼트,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건설 등 4개 분야이며, 총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 지원사업 모집 분야, 선발 기업수, 사우디 참여기관 >

분야	선발 기업수	사우디 참여기관	
		정부부처	정부기관
AI	10개	통신정보기술부	HUMAIN
바이오&헬스	7개	투자부	미정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관광부 또는 스포츠부	Red Sea Global
스마트 시티&건설	5개	투자부	Al Murabba
공통		SVC, Waed Venures (투자 관련 정부기관)	

* 선발 기업 수와 참여기관은 사우디 정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우디 참여기관은 7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별도 공지 예정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7월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말 사우디를 방문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교류·협력(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인공지능(AI) 총괄기관인 HUMAIN의 경우 기업당 최대 200만불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단, 적정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가 없을 수 있음

주사우디대사관 문병준 대사대리는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우디 정부와 수많은 논의 끝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 마침내 추진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 및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다.”라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 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케이(K)-원팀을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일시 및 장소 : (1차) '25년 7월 8일(수) 14:00 ~ 15:30, 서울 역삼동 마루180(B1층),
(2차) '25년 7월 10일(목) 14:00 ~ 15:30, 대전역 KTX 회의실(우암홀, 5층)

** 주요 내용 : 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방향, 사우디 경제 현황 및 주요 정책, 사우디 참여기관 소개,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 등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달 7월 7일(월)부터 7월 24일 (목)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송승현	(044-204-7463)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책임자	대사대리	문병준	
		담당자	주재관	강기삼	(966-11-488-2211)
	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1본부	책임자	본부장	박태근	(02-6331-7087)
		담당자	과 장	곽준호	(02-6331-7089)

